

문화

■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무 상상강좌 제4탄

“백남준에 대한 우리사회의 홀대 아쉬워
한국 중심으로 한 학술적 평가 이뤄져야”

김홍희 전 경기도미술관장 ‘현대미술과 백남준’

독일 경제월간지 ‘캐피탈’ 선정 유명무자 대상 작가 세계 7위, 미국 미술잡지 선정 ‘아트뉴스’ 20세기 작가 25인, 독일 ‘포커스’ 선정 ‘올해의 100대 예술가’(1996년)...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난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은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였다. 백남준 만큼 국제미술계가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작가는 없었다. 하지만 ‘가장’의 화려했던 예술은 과거이야기(?)가 돼버렸다. 그의 작품들은 아티페어나 옥션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재조명 작업도 미흡하다.

보통 유명작가들의 경우 사후에 작품 가격이 급격히 치솟는데 반해 백남준의 작품들은 ‘입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회도 워싱턴 국립미술관 등 외국에서 활발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미술과 백남준’을 주제로 지난달 28일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나무 상상강좌’는 가뭄에 단비 같은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홍희 전 경기도미술관장(2006년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은 “백남준을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로 부르기에 그의 작품세계가 넓고 깊다”면서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했던 위대

한 음악가이자 철학자, 동양적 정서와 서양의 기술을 비디오 아트로 결합시킨 진정한 아방가르드였다”고 말했다.

김홍희 전 관장은 백남준의 예술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백남준 전문가. 지난 1980년대 뉴욕에서 미술사 공부를 할 당시 백남준과 인연을 맺었던 김 전 관장은 제1회 광주비엔날레 인포아트 디렉터였던 그와 함께 작업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의 작품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김 전 관장은 거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홀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작품 가치에 대한 저평가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아이코닉에도 불구하고 작품가 격은 처참(?)할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그의 영향을 받은 비디오 아티스트 빌 비올라와 브루스 나우만의 경우(미술시장에서) 작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것이다.

“백남준 선생이 미술경매 등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컬렉터층이 많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의 미술사적 업적에 대한 학술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인정한다면 그의 작품세계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먼

저 그의 작품목록을 시대별, 주제별로 분류하는 ‘카탈로그 레조네’와 같은 아카이빙 작업이 시급합니다.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미국, 유럽의 그룹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한국이)이들을 통합시키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술시장에서 백남준을 ‘포지셔닝’하는 것도 후손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날 강연회에서 김 전 관장은 광주작가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나타냈다. 지난 2006년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을 맡으면서 지역작가들과 함께 작업했던 그는 “광주는 강운, 손봉채, 이이남 등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젊은 작가들이 많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제 광주는 비엔날레를 계기로 미술도시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엔날레 효과’인 셈이지요. 광주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 재단이 우수한 지역작가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전략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한편 다섯번째 ‘문화나무 상상강좌’는 오는 5월 26일 빛고를 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현대미술과 예술적 상상력’을 주제로 나희덕 교수(조선대 문예창작학과)가 강연할 예정이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지난달 28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문화나무 상상강좌’에서 김홍희 전 경기도미술관장이 ‘현대미술과 백남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악나무’ 무지크바움 앙상블 연주회
MUSIKBAUM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무지크바움앙상블 연주회가 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독일어로 ‘음악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무지크바움’은 지난 2004년 결성된 그룹으로 구재항(피아노·호신대교수), 박다연(바

이올린·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신정문(비올라·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수석), 이지현(첼로·스콜피아오케스트라 수석)씨로 구성돼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훔멜의 ‘피아노 4중주곡’, 투리나의 ‘피아노 4중주 A단조’, 드보르작의 ‘피아노 4중주 작품 87’이다.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56회 호남예술제 무용 입상자

발레

<심사위원>

박준희 (조선대 교수)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

◇클래식 독무 초등부 5·6학년

▲최고상 2 김지은(대반6)

▲금상 3 정유진(하백5)

▲은상 4 김승기(광주월산5)

▲동상 1 권다은(광양용강5)

◇클래식 독무 중등부

▲최고상 5 이누리(동아여자3)

▲금상 3 정연재(동아여자2)

▲은상 1 강원준(동아여자2)

▲동상 2 박정빈(수원1) 4 박수빈(동아여자2) 6 김희주(대성여자3)

◇클래식 독무 고등부

▲최고상 3 조종희(광주예술3)

▲금상 1 전민석(광주예술2)

2 박수지(동아여자3)

◇창작 독무 초등부 3·4학년

▲최고상 4 이예진(선창4)

▲금상 2 황은영(큰별3)

▲은상 2 황인정(광양옥룡4)

5 기정은(수원3) 6 이수아(풍암4)

▲동상 1 김유진(화개3) 12 서종하(광주송원3)

◇창작 독무 중등부 5·6학년

▲금상 2 김지현(수원6) 3 최하은(마지6)

▲은상 5 박소원(광주송원5)

▲동상 4 양서희(광양용강5)

◇창작 군무 초등부

▲금상 1 정진영의 19명(만호2~4) 3 양수빈의 10명(화순1~6)

▲은상 2 서종하의 7명(광주송원3)

◇창작 독무 중등부

▲금상 1 김유정(대성여자1)

2 황민혜(동아여자3)

▲동상 3 이유은(광주3)

◇창작 군무 중등부

▲최고상 1 정연재의 5명(동아여자2~3)

◇창작 독무 고등부

▲최고상 1 김영지(동아여자3)

▲최고상 1 김지은의 5명(동아여자2~3)

◇독무 고등부

▲최고상 4 이주해 (광주수피아여자2) 8 박효재(풍암3)

▲금상 1 김아현(광주수피아여자2) 7 김민석(상일여자3)

▲은상 6 정희은(광주수피아여자2) 11 박유빈(대성여자3)

▲동상 3 문경재(전남예술2)

5 박다희(광주수피아여자2)

10 강은비(조선대학교여자3)

◇군무 고등부

▲최고상 1 정아름의 8명(광주수피아여자1~3)

한국무용

<심사위원>

김미숙 (조선대 교수)
박선옥 (광주여대 교수)

◇전통 독무 중등부

▲금상 2 박다은(선창2)

▲은상 1 이혜지(대자2)

▲동상 3 임지연(송의3)

◇전통 독무 고등부

▲금상 3 신슬찬(광주예술1)

▲은상 2 손민한(광주예술1)

▲동상 1 최예지(동아여자1)

◇창작 독무 초등부 3·4학년

▲금상 1 공혜정(화순만연3)

2 박하경(화개3) 3 임가현(화

‘5월의 입을 만한 책’

간행물윤리위,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5월의 입을 만한 책’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노트 ‘보통의 독자’(함께읽는책 펴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했다.

패션에 주목해 정치를 분석한 ‘패션과 권력’(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과 라틴아메리카 미술의 특징과 그 에너지의 원천을 소개한 ‘라틴현대미술 저항을 그리다’(한길사 펴냄)도 포함됐다.

이밖에 ‘백광나치오’ ‘장자 교양 강의’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0.1퍼센트의 차이’ ‘이브 바투타의 오디세이’ ‘나무가 민중이다’ ‘뱃집 준비’ 등도 선정됐다.

분야별 선정도서 목록과 위원들의 추천사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의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진남호국문화계승

제 45회 여수

2011.5.3~6 _ 4일간
이순신광장(구 해양공원)

주요행사 ———
통제영길놀이 5.3 _ 오후 6시부터
생선요리·향토음식큰잔치
돌산갓김치 한마당
거북선가요제



“거룩한 희생, 뜨거운 눈물, 위대한 승리”

통제영길놀이 구간

시민회관 ● 서교동로타리 ● 중앙동로타리 ● 진남관 ● 여수경찰서

주최_ (사)진남제전보존회 주관_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후원_ 여수시 | 전라남도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교육지원청 | 여수경찰서 | 여수해양경찰서 | 여수소방서 | 대한민국해군 | 여수국가산업단지임주사